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이동의 영향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 시군구 단위의 성·연령별 인구수를 토대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0년의 경우 지역의 인구구조는 '대도시형'(25.5%), '구도시형'(43.0%), '신도시형'(18.2%), '농촌형'(13.6%) 등 도시규모와 도시화율에 따라 뚜렷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2020년 지역의 인구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연령에 따른 차등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유지형'(28.7%), '청년유입형'(47.1%), '중년유출형'(19.3%), '청·중년유출형'(4.9%)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 20년간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중년유출형'과 '청·중년유출형'은 2000년 당시 '농촌형' 지역이 대다수였다. 한편 2000년 당시 '대도시형'의 35%는 2020년 현재 '중년유출형'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년유출형'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위험이 예상된다. 반면, '신도시형'의 경우 69%의 지역이 '인구유지형', 31%는 '청년유입형'으로 변화하여 청년의 지속적인 유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각 지역별로 경험해온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질적이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특화된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인구연구가 필요하다.

누구나 한번쯤, 한국사회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인구피라미드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구피라미드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의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1960년대)에서 항아리형

(1990년대) 등으로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학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구피라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한 사회의 인구구조와 그것의 변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고(김태현, 2012),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자연적 증감(출생과 사망)과 사회적 증감(인구이동)의 결과를 한눈에 확인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왔던 인구피라미드는 한국 사회 전체 또는 시도 수준에서 분석된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실제 삶을 영위하는 지역의 단상을 파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이라는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갑작스럽게 노년인구수와 20대 여성인구수로 측정된 단순한 산식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사회 전체의 인구구조 변화에만 관심을 두다가, 용어도 공포스러운 지방소멸이라는 지수형태로 시군구 수준에서 제시되면서 현재의 상황을 자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지방소멸지수는 성차별적 논쟁을 넘어 특정 인구집단의 특성만을 고려한 것이기에 지역의 인구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다. 이런 면에서 인구피라미드는 매우 좋은 대안이지만 200개가 넘는 지역을 일일이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난 20년간(2000~2020년) 성·연령별 인구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심볼릭데이터¹⁾를 분석하기 위해 Korenjak-Cerne, Kejzar와 Batagelj(2015)의 연구에서 적용한 가중군집분석방법²⁾을 이용하여 연령별 인구구조를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유사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인구피라미드를 제시하여 지역에 따른 이질적 인구구조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 특정 연령집단의 인구이동이 얼마나 각기 다른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구구조의 지역별 차이와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피라미드는 한 지역의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반영된 인구구조의 단상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오랫동안 인구학에서 유용하게 활용된

도식이다. 이에 시군구 단위에서의 인구피라미드를 유형화하기 위해 성별과 5세 단위로 측정된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에 대해 심볼릭 데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유클리디안 제곱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와 같이 시군구 단위에서의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비유사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도출된 비유사성을 이용하여 가중군집분석을 통해 인구구조가 유사한 지역군을 도출,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활용하여 최적의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I-20]은 2000년을 기준으로 234개 시군구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구조를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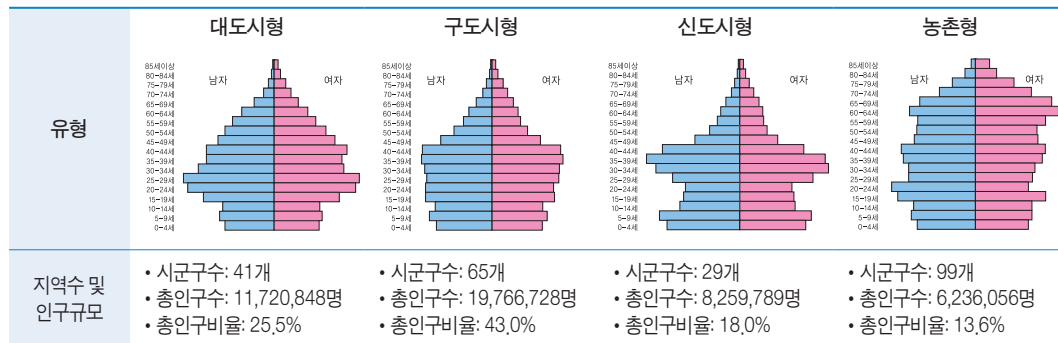
먼저, ‘대도시형’은 저출산에 따른 저연령층 인구의 상대적 분포는 적지만,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20대의 증가로 인해 20대가 가장 지배적인 인구구조를 갖는 형태이다. 이 유형에는 서울특별시 19개 구(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 부산광역시 10개 구(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그리고 대구광역시 4개 구(중구·동구·서구·남구), 인천광역시 3개 구(중구·동구·남구)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와 남구, 대전광역시의 동구와 중구, 경상남도 마산시 등 총 41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그리고 ‘구도시형’은 오래 전부터 인구 규모가 컸던 대도시의 일부 자치구와 중소도시 65개 지

1) 심볼릭데이터(symbolic data): p-차원의 공간 상에서 하나의 점(point)으로 구성되는 기존 데이터와는 달리, 구간(interval), 히스토그램(histogram), 목록(list), 통계표, 분포, 또는 모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히스토그램이나 범위(예: 20~25세)를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에 빅데이터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2) 가중군집분석방법(weighted clustering method): 시군구의 5세별 인구수로 구성된 심볼릭데이터에 대해 5세별 인구수의 상대적 빈도를 가중치로 부여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군집분석은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림 I-20] 2000년 인구피라미드 유형



주: 1) 심볼릭데이터(symbolic data)에 대한 저자의 가중군집분석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역이 속한 유형이다. 2000년 기준 총 인구의 43%가 이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 유형에는 서울 특별시 6개구(도봉구·노원구·양천구·강서구·송파구·강동구), 부산광역시 5개 구군(북구·해운대구·사하구·사상구·기장군), 대구광역시의 3개구(북구·수성구·달서구)와 함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부평구, 광주광역시 서구와 북구, 대전광역시 서구와 대덕구, 울산광역시 3개 구(중구·남구·동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의 시군구 외에도 경기도의 14개 시군(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동두천시·구리시·의왕시·하남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여주군·화성군·포천군), 강원도 6개 시(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 충청북도 4개 시군(청주시·충주시·제천시·증평출장소), 충청남도 3개 시(천안시·아산시·서산시), 전라북도 3개 시(전주시·군산시·익산시), 전라남도 3개 시(목포시·여수시·순천시), 경상북도 4개 시군(포항시·경주시·경산시·칠곡군), 경상

남도 3개 시(진주시·진해시·통영시), 그리고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포함된다.

‘신도시형’은 새롭게 도시개발을 통해 생성된 지역으로 30~40대의 인구, 그리고 이들의 자녀 세대인 10대 미만의 인구가 다수를 이루는 지역이다. 이 유형에 전체 인구의 18%가 거주하고 지역수는 29개로 가장 적다. 이 유형에 속한 시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3개 구(연수구·계양구·서구), 울산광역시 2개 구군(북구·울주군), 충청남도 계룡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4개 시(창원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가 이에 속한다. 특징적인 것은 경기도의 14개 시군(수원시·의정부시·평택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용인시·김포시·양주군·광주군)이 대다수를 이룬다는 것이다.

‘농촌형’은 다른 인구피라미드형에 비해 고령자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 연령층이 고른 분포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2000년에만 하더라도 각 지역별 인구규모는 다른 유형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지만 중년 이하의 연령층이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농어촌 도시를 포함한 99개 지역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광역시에 속한 구와 군으로 이 유형에 3개 지역만 포함된다. 나머지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지역이다. 또한 경기도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만 이 유형에 포함된다. 반면, 강원도 12개 시군(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청북도 8개 군(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충청남도 12개 시군(공주시·보령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전라북도 11개 시군(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전라남도 18개 시군(나주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상북도 18개 시군(김천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경상남도 12개 시군(사천시·밀

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그리고 제주도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대다수가 지방 소지역들이다.

[그림 I-21]은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2020년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피라미드이다. 특징적인 것은 2000년의 경우 1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인구피라미드형이 존재한 반면, 2020년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 모든 인구피라미드에서 이들의 규모가 매우 줄어든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유형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인구유지형’의 경우 인구피라미드에서 30~40대가 지배적인 연령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상대적 비중은 적지만 다른 인구피라미드에 비해 10대 미만의 연령층도 두텁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적인 인구증가율이 1.6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평균 고령화비율은 12.16%로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인다. 다만, 평균 합계출산율은 0.98로 청·중년유출형보다는 낮는데 이 유형에 속한 지역의 대다수가 대도시와 신도시라는 측면에서 출산행태의 도시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총 35개로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유형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3개 구(중구·연수구·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

[그림 I-21] 2020년 인구피라미드 유형

유형	인구유지형	청년유입형	중년유출형	청·중년유출형
지역수 및 인구규모	• 시군구수: 35개 • 총인구수: 14,380,176명 • 총인구비율: 28.7%	• 시군구수: 64개 • 총인구수: 23,622,677명 • 총인구비율: 47.1%	• 시군구수: 69개 • 총인구수: 9,662,397명 • 총인구비율: 19.3%	• 시군구수: 61개 • 총인구수: 2,468,243명 • 총인구비율: 4.9%
평균 인구 증가율(%)	1.68	-0.58	-1.15	-1.87
평균 합계 출산율(명)	0.98	0.77	0.97	1.16
평균 고령자비율(%)	12.16	15.90	22.63	33.70

주: 1) 심볼릭데이터(symbolic data)에 대한 저자의 가중집분석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 「e-지방지표」, 각 연도.

울산광역시의 동구와 북구, 그리고 세종시가 포함된다. 그리고 경기도의 13개 시(수원시·평택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김포시·화성시·광주시·양주시),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와 충청남도 3개 시(천안시·아산시·계룡시), 경상북도 구미시와 칠곡군,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그리고 제주시가 이 유형에 속한다. 즉 최근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다수 포함된다.

‘청년유입형’의 주요 특징은 인구피라미드에서 50~60대의 장년층이 가장 많은데 반해 30~40대의 중년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 청년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유형에 있어 서울특별시는 도봉구를 제외하고 24개 모든 자치구가 포함된다. 또한, 부산광역시 2개 구(부산진구·수영구), 대구광역시 4개 구(중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광역시 4개 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미추홀구), 광주광역시 4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광역시 3개 구(중구·남구·울주군), 그리고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전라북도 전주시와 군산시, 전라남도 4개 시군(목포시·순천시·광양시·무안군),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가 이 유형에 속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기도 12개 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군포시·의왕시·안성시)가 이 유형에 속하는데, 대체로 1기 신도시와



같이 서울에 인접해있으면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0.58%로 감소세에 있으며, 평균 합계출산율 역시 0.77로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다. 반면 청년층이 유입됨에 따라 평균 고령자비율은 15.9%로 2개의 인구유출형보다는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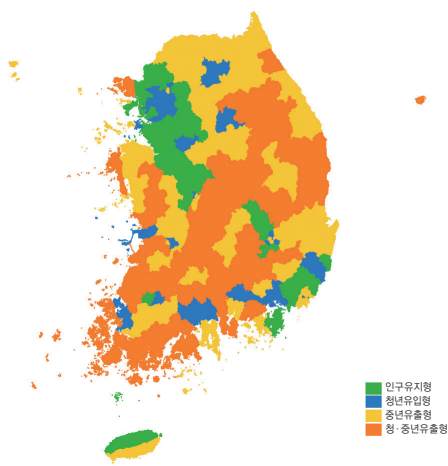
이제 두 개의 인구피라미드 유형이 남아있는데 이 두 유형은 주목해야 할 지역들이다. ‘중년유출형’은 50~60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인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30~40대의 중년층은 적은 지역이다. 이 유형은 ‘청년유입형’과 다소 유사한 인구피라미드 구조를 보이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자비율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유형은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30~40대 중년층의 인구유출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인구증가율은 -1.15%로 인구감소세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평균 합계출산율은 0.97로 낮은 편으로 가임연령에 해당되는 30~40대의 유출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속되는 인구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해 평균 고령자비율은 22.63%로 높은 편이다. 이 유형에는 69개 지역이 포함되며 전체 인구의 19.3%만이 거주하고 있다. ‘중년유출형’에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유일하게 포함되며, 부산광역시의 대다수 구인 12개 구(중구·서구·동구·영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사상구), 대구광역시 3개

구(동구·서구·남구), 인천광역시 동구와 옹진군, 대전광역시 동구와 중구가 포함된다. 경기도에서는 6개 시군(동두천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이 이 유형에 속하며, 강원도 11개 시군(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충청북도 5개 시군(충주시·제천시·진천군·음성군·증평군), 충청남도 6개 시군(공주시·보령시·서산시·논산시·당진시·홍성군), 전라북도 4개 시군(익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 전라남도 4개 시군(여수시·나주시·화순군·영암군), 경상북도 7개 시(포항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경산시), 경상남도 5개 시군(통영시·사천시·밀양시·함안군·거창군)과 제주 서귀포시가 이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청·중년유출형’은 다른 인구피라미드 유형에 비해 고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진다. 또한 중년층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세대인 아동·청소년층, 그리고 청년층이 매우 적은 인구구조를 보이는 전형적인 초고령화된 지역(평균 고령자비율 33.7%)의 특성을 보여준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유형에는 총 61개 지역이 해당되며, 전체 인구의 4.9%만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이 유형에는

인천광역시의 강화군만 포함되며 대다수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군 단위 지역들이다. 강원도 5개 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양양군), 충청북도 5개 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 충청남도 6개 군(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 전라북도 8개 시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전라남도 14개 군(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상북도 14개 시군(상주시·문경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경상남도 8개 군(의령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림 I-22] 2020년 인구피라미드 유형의 지역 분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e-지방지표」, 각 연도.

앞서 살펴본 2020년을 기준으로 4개로 유형화한 인구피라미드를 지역별로 나타내면 [그림 I-22]와 같다.

인구구조에 있어 인구이동의 영향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인구는 지역이동과 같은 사회증가율(유입률-유출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 4개의 인구피라미드 유형에 따라 주요 연령층의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인구유지형’의 경우 20~5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순이동률이 높다. 즉, 유출률보다 유입률이 더 많게 나타났다. ‘청년유입형’의 경우 30대 이상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20대의 인구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중년층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로 인해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중년유출형’과 ‘청·중년유출형’의 경우 20~30대의 인구유출이 큰 지역으로 ‘청·중년유출형’의 경우 20대의 평균 순이동률이 ‘중년유출형’에 비해 약 2.7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중년유출형’ 지역에서 청년과 중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청·중년유출형’으로 변화될 위험이 높다.



이는 <표 I-10>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년유출형’과 ‘청·중년유출형’은 2000년 당시 ‘농촌형’ 지역이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 당시 ‘대도시형’의 35%는 2020년 현재 ‘중년유출형’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년유출형’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위험이 예상되나, 중년층과 청년층의 인구유출을 정책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청·중년유출형’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신도시형’의 경우 69%의 지역이 ‘인구유지형’, 31%는 ‘청년유입형’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지역 청년의 지속적인 유입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2000년에 ‘대도시형’이었던 지역은 다수가 ‘청년유입형’으로 변화되었다. 전통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을 형성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년층의 유출이 지속되었고, 이 자리를 청년층이 유입되어 대신한 결과이다.

<표 I-10> 2000년과 2020년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				
2020 2000	인구 유지형	청년 유입형	중년 유출형	청·중년 유출형
대도시형	2.5	62.5	35.0	-
구도시형	18.8	45.3	35.9	-
농촌형	1.1	1.1	33.7	64.2
신도시형	69.0	31.0	-	-

주: 1) 2000년과 2020년 인구구조의 변화분석에서 청원군, 연기군, 마산시, 진해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세종시는 제외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e-지방지표」, 각 연도.

그렇다면 2000년 당시 ‘농촌형’이었던 지역이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된 것은 어떠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이는 <표 I-11>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농촌형→중년유출형’으로 변화된 지역과 ‘농촌형→청·중년유출형’으로 변화된 지역 모두 평균적인 합계출산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농촌형→청·중년유출형’이 ‘농촌형→중년유출형’에 비해 고령자비율은 높고, 인구증가율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증가율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청년층과 함께 중년층의 유출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표 I-11> 인구구조가 농촌형(2000년)에서 중년유출형과 청·중년유출형(2020년)으로 변화된 지역의 특성

구분	농촌형 → 중년유출형	농촌형 → 청·중년유출형
지역수(개)	32	61
인구특성		
평균 인구증가율(%)	-1.00	-1.87
평균 합계출산율(명)	1.13	1.16
평균 고령자비율(%)	24.87	33.70

주: 1) 2020년 기준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부산 강서구, 전남 무안군은 제외함.

2) 2000년에 ‘농촌형’이었던 청원군, 연기군, 북제주군은 타지역으로의 편입에 따라 제외함.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 각 연도.

소멸위험지역 지수의 한계

고용노동부의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보도자료(2022년 4월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의 49.6%인 113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청년의 인구유출방지를 위

한 고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수를 토대로 청년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I-12〉는 앞서 분석한 2020년 인구피라미드 유형과 소멸위험지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3개 지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인구유지형’ 중 34.3%는 ‘소멸주의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소멸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임기 여성인구(20~39세)를 포함한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표 I-12〉 2020년 인구피라미드와 소멸위험지수와의 관계

(% , 개)

구분	소멸위험지수 ¹⁾			지역수
	소멸위험 지역	소멸주의 지역	정상 지역	
인구유지형	-	34.3	65.7	35
청년유입형	-	65.6	34.4	64
중년유출형	59.4	40.6	-	69
청·중년유출형	100.0	-	-	61
지역수	102	82	45	229

주: 1)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수)/(65세 이상 인구수).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소멸주의지역: 소멸위험지수 0.5~1.0 미만.

정상지역: 소멸위험지수 1.0 이상.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 2020.

고용노동부,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2022.3.

‘청년유입형’ 지역은 65.6%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청년유입형’ 지역의 평균 고령자비율은 15.9%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청년층의 유입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년유출형’ 지역의 59.4%, ‘청·중년유출형’ 지역의 10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수’의 비율로 계산한 소멸위험지수는 인구이동이라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표라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에서 강조하는 ‘20~39세 여성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라 20대 청년수가 문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인구유출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중년층의 인구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지역인구연구와 지역 특화형 인구정책의 필요성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학업을 위해 그리고 일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청년의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청년의 인구유출률이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기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의 청년과 달리 오늘날의 청년들은 SNS 등을 통해 도시청년들이 누리는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같이 향유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방은 이러한 도시 어메니티(urban amenity)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은 지방을 떠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인프라 조성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고, 청년정책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이상림, 2020).

이와 함께 지방의 중년층 인구유출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주거지와 일한 곳을 떠나 자녀와 함께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의 결심으로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층이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부담은 크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중년층의 인구유출 원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청년유입형’ 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주택마련비용과 주거비로 인해 직장과 가까운 대도시 인근으로 이사하여 도시 어메니티와 적절한 교육인프라를 누리고자 ‘인구유지형’ 지

역으로 중년층이 빠져 나간다. 반면, ‘중년유출형’이나 ‘청·중년유출형’ 지역의 중년층은 자녀의 교육, 더 많은 일자리 기회와 도시 어메니티의 향유를 위해 떠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출산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년층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에 적합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단위의 인구연구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인구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연구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보도자료(2022년 4월 발표).
- 김태현, 2012, “우리나라 인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건복지포럼 191: 6-16.
- 이상림, 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Focus 395호.
- Simona Korenjak-Černe, Nataša Kejžar & Vladimir Batagelj, 2015, “A weighted clustering of population pyramids for the world’s countries, 1996, 2001, 2006”, Population Studies, 69:1, 105-120, DOI: 10.1080/00324728.2014.954597

